

제8강 일반인과 생사학의 죽음이해 비교 1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회에는 죽음의 문화가 없고, 의료현장에서 심폐사와 뇌사가 마치 죽음정의라도 되는 듯이 활용되고 있고, 죽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찾아보기 힘들다. 자살률이 급증하고, 자살 충동자가 양산되고 나아가 대다수 사람들이 불행한 죽어가는 것도 죽음문화의 부재, 웰다잉 교육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인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의료현장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생사학과 불교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비교검토해 차이점과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다음같이 7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인간의 죽음을 육체중심으로 이해하는가
2	죽으면 다 끝나는가
3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4	영혼의 성장, 영적인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는가
5	그런 죽음이해로 인해 죽음을 절망, 두려움으로 보게 되는가
6	우리 삶을 배움의 장소, 수행의 기회로 간주하는가
7	그런 죽음이해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는가

우리는 죽음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4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과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것, 어디서나 죽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죽음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도 사람마다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이 똑같지 않다. 죽음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를 지닌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값진 죽음이 될 수도, 무의미한 죽음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심리상태를 거치면서 죽어가는지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¹⁾ 대개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9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절망, 두려움 :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절망, 혹은 두렵다고 생각한다.

2 부정 :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부정하면서 죽는다.

1) 미국의 퀴블러로스가 『인간의 죽음』을 1969년 간행하면서 처음으로 죽음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부정과 고립, 둘째 분노, 셋째 타협, 넷째 우울, 다섯째 순응.

- 3 분노 : ‘왜 죽어야하는지’ 주위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 4 슬픔 :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슬픔에 잠긴다.
- 5 삶의 마무리 : 운명이나 의사와 타협해 삶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자 한다.
- 6 수용 : 죽음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다.
- 7 희망 : 사후세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지니고 죽는다.
- 8 마음의 여유와 유머 : 여유있는 모습으로 죽음에 임한다.
- 9 밝은 죽음 : 죽음에 임해 밝은 마음으로 여행을 떠난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9가지 유형을, 위에 제시한 7가지 질문과 연결지우면서, A 일반인의 죽음이해(의료현장에서 통용되는 죽음이해), B 생사학의 죽음이해, C 불교의 죽음이해(생사윤회), D 불교의 죽음이해(붓다의 열반) 각각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 일반인의 죽음이해(의료현장에서 통용되는 죽음이해)

1	인간의 죽음을 육체중심으로 이해한다.
2	죽으면 다 끝난다고 간주한다.
3	영혼의 존재를 부정한다.
4	영혼의 성장 역시 부정한다.
5	육체 중심, 이 세상 중심으로 죽음을 이해하니까, 두려움이나 절망으로 간주하기 쉽다.
6	이런 문제에는 전혀 관심 없다.
7	의료현장에서 죽음관정의 육체적 기준뇌사, 심폐사가 마치 죽음정의인 듯이 통용. 일반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2)

2) 간호사들은 죽음을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지만 죽음과 자살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다. 실제로 죽음에 대해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일이 없고, 심폐사와 뇌사를 중심으로 죽음정의를 배웠다. 하지만 심폐사와 뇌사는 죽음관정의 육체적 기준일 뿐이지 죽음정의를 될 수 없다. 죽음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접하고 일반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간호사와 의사에게 적절한 죽음교육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끝이므로, 자살하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어느 간호사는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답하면서 죽으면 무미, 무취, 무감각, 무통해진다고 답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간호사들이 많았다. 의과대학에서 죽음정의를 심폐사 혹은 뇌사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살피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역시 육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죽음 이해와 개념규정의 방향에 따라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나 타부 등을 야기하기도 하고, 삶과 죽음의 방식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죽음에 대한 개념정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9가지 죽음 유형 가운데 다섯 가지 반응(첫 번째 두려움 혹은 절망에서부터 다섯 번째 삶의 마무리까지)은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 모습에서 흔히 나타난다. 대다수 사람들의 죽음 이해와 방식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죽어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절망과 두려움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시간을 연장하려고만 한다. 결국 두 눈을 부릅뜬 채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가족에게 안타까움만 남길 뿐이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인생의 모든 것으로 여길 만큼 영혼이 메말라 있다. 삶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또는 근거 있는 신념도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극적인 의미를 상실한 채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 반응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은 죽어가는 환자 대부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종의 ‘자기방어’라고 할 수 있다. 죽어가는 당사자가 자기 자신에게 압박해 있는 죽음을 부정하는 사례도 있고, 사랑하던 가족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심지어 몇 년 뒤까지도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어수단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분적 순응’으로 대치되게 마련이지만, 끝까지 죽음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반응은 세상에 대한 분노이다. 대부분의 임종환자들은 “왜 내가 죽어야 하나?”며 주위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아직 죽고 싶지 않다, 더 오래 살고 싶다’는 희망의 감정이 분노의 형태로 표출되곤 한다. 분노로 가득 찬 말기환자와는 아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사람들은 세상과 주변사람, 심지어는 자신에게조차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치솟아 오르게 된다.

네 번째 반응은 슬픔이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게 될 때, 증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몸이 현저하게 약해질 때쯤이면 그전까지 환자가 보여주었던 초연한 듯한 자세와 무감정, 분노 등의 감정은 극도의 상실감으로 바뀌게 된다.

다섯 번째 반응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삶의 마무리 과정이다. 죽기 전에 인간관계상 갈등이 있다면 원만하게 화해를 하고, 매듭짓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잘 마무리하는

일은 죽음을 앞둔 환자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삶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B 생사학의 죽음이해

1	인간의 죽음을 육체중심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3)
2	죽음은 다른 세상으로 여행 떠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4)
3	영혼의 존재 인정,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다른 세상으로 떠난다.
4	죽음은 성장의 마지막 단계라 하여 영적인 성장의 중요성 강조한다.
5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보므로, 죽음을 두려움이나 절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6	이 세상에서 배움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7	우리 사회에서 생사학 연구가 미비하므로, 사회적 영향력은 거의 없다.

3)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살핀 경험이 있는 퀴블러로스는 아주 확실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육신은 껍질에 불과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은 더 이상 그 껍질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죽음이 찾아오면 시체가 남는 것이지만, 시체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죽더라도 존재의 양식만 바꿀 뿐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제 죽음 정의는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것을 넘어 영혼, 정신, 삶의 의미같이 순전히 물질적인 삶과 생존 이상의 무언가 지속되는 것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의학적, 법적인 접근은 단지 죽음의 육체적 측면만, 즉 죽음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 다루는 격이다. 육체의 죽음, 한 가지 죽음 판정기준에 국한시킨다면 삶과 죽음에 대한 폭넓은 가능성을 제한하는 일도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죽음을 폭넓게 또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죽음에만 국한시키기보다 다양하게 접근해야만 우리의 삶과 죽음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다.

4) 생사학을 창시해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죽음관을 제시했던 20세기의 영적 지도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그녀는 1995년 자신의 삶을 조망하는 자서전을 썼다. 자서전 집필 내내 뇌출혈로 쓰러져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 여러 번 위기를 겪기도 한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자신의 필생의 업적에 대한 기록을 끝내면서 자서전 표지를 하늘로 날아오르는 나비 한 마리 그림과 어린 암환자에게 보냈던 다음의 편지로 장식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져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 우리는 마치 미래의 나비를 품고 있는 고치처럼 / 영혼을 가두고 있는 육신을 버릴 수 있게 된단다. / 그리고 때가 오면 우리는 육신을 떠나서 / 고통도, 두려움도, 걱정도 없는…… / 마치 정말 아름다운 한 마리 나비처럼 자유로이……. (퀴블러로스,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 11쪽)

그녀는 어느 날 스위스에서 아침식사로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한 모금 피우는 순간, 갑자기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그녀는 ‘이제야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죽음은 이 세상을 졸업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퀴블러 로스에게 죽음에 다가가는 것은 오히려 기쁘고 흥분되는 일이었다. 그때 그녀는 다른 임사체험자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스위스적인 산길에서 자기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회고하기도 했고 그 너머 밝게 빛나는 빛의 세계를 향해 날아가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났지만, ‘안타깝게도’(퀴블러 로스의 표현) 다음 순간, 의식을 회복했다. 아직 죽을 때가 오지 않은 것이다.(다찌바나 다카시, 『임사체험(상)』 420-422쪽)

그렇게 죽음의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퀴블러 로스는 2004년 8월 24일 “나는 우주로 출추러 간다. 그곳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놀겠다”라는 말과 함께 78세의 나이로 여행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그녀의 두 딸이 관 앞에서 작은 상자를 열자 상자 안에서 한 마리 호랑나비가 날아올랐고, 참석자들이 미리 받은 봉투에서도 수많은 나비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라 장관을 이루었다.(퀴블러로스 외, 류시화역, 『인생수업』 이레, 2006년, 13쪽)

5) 퀴블러로스에 따르면 우리는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예외없이 인생 학교에 등록한 것이다. 살아있는 한 인생 수업은 계속된다. 이 삶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수업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 사랑, 관계, 상실, 두려움, 인내, 받아들임, 용서, 행복 등이 인생수업의 교과목이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에 4가지 측면이 있다. :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영적인 건강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의 건강에 당연히 영혼이나 영성,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건강에 영적인 건강을 포함해 4가지 측면이 있다면, 죽음도 당연히 4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1 육체적 죽음, 2 사회적 죽음, 3 정신적 죽음, 4 영적인 죽음. 6)

그러나 우리 사회는 육체적 죽음과 사회적 죽음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정신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는 무관심하다. 인간의 삶과 죽음, 생명 혹은 영혼의 문제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죽음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먼저 심사숙고해야 한다.

퀴블러 로스도 인간존재는 육체적, 감정적, 지적, 영적인 4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진짜 문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참된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고 의대생과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는 일에 부딪혀 보기로 결정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하게 죽어가고 있고, 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가족이 죽어가는 사람을 병실 한 구석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 역시 죽음이해와 정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자기 환자와 항상 깊은 인간적 관계를 유지했던 그는 사람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 싶어했다. 분노와 욕설, 좌절의 상태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바로 뒤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는 침착함, 평온함을 자주 목격하면서, 죽은 그들의 육신은 붉어 되어 더 이상 필요 없어 벗어 던진 겨울 외투처럼 보여졌다.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살핀 경험이 있는 그는 아주 확실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육신은 껍질에 불과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은 더 이상 그 껍질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7) 죽음이 찾아오면 시체가 남는 것이지만, 시체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죽더라도 존재의 양식만 바뀔 뿐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다. 8)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은 뇌사나 심폐사처럼 죽음판정의 육체적 기준만으로 정의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육체 중심의 죽음판정 기준이 죽음정의를 대신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죽음문화가 성숙될 수 없고 자살처럼 불행한 죽음만 양산될 뿐이다. 사후의 삶에 대한 연구결과,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생존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고 퀴

6)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호스피스에 죽어가는 사람의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보살피는 일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죽어가는 사람 중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성숙한 죽음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죽음정의와 그 이해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7) 퀴블러 로스 『사후생』 최준식역 (대화출판사, 1996년) 54-55쪽

8) 다짜바나 다까시 『임사체험』 상 (청어람미디어, 2004년) 411쪽

블러 로스는 말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한 것과 같은 그런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그는 이르렀다.

이제 죽음 정의는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것을 넘어 영혼, 정신, 삶의 의미같이 순전히 물질적인 삶과 생존 이상의 무언가 지속되는 것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⁹⁾ 의학적, 법적인 접근은 단지 죽음의 육체적 측면만, 즉 죽음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 다루는 격이다. 육체의 죽음, 한 가지 죽음 판정기준에 국한시킨다면 삶과 죽음에 대한 폭넓은 가능성을 제한하는 일도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죽음을 폭넓게 또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죽음에만 국한시키기보다 다양하게 접근해야만 우리의 삶과 죽음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다.

또한 죽음이 끝나지 않거나, 혹은 죽은 뒤 영혼은 유지되느냐 여부 문제 역시 죽음 정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죽음 정의 문제는 죽음 이후 문제와 아무 관련 없이 논의되어서는 곤란하다. 죽음은 우리의 삶과 죽음 이후를 연결시켜주는 매듭의 역할을 하므로,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3가지는 함께 심사숙고되지 않으면 안된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이 끝나지 아니라는 것은 단지 지식의 문제, 사실의 문제라고 말했다.

소아암 등으로 죽음에 직면한 어린아이들을 향해 그는 “우리 몸은 형겼으로 만든 번데기와 마찬가지로 죽으면 영혼은 육신으로부터 벗어나 나비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 올라간다”고 말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도 “죽음이란 육신의 옷을 벗는 행위” 라고 규정했다.¹⁰⁾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이 아니므로, 죽음의 정의 역시 육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결과 사람들은 육체에만 국한되는 그런 삶, 지나치게 세속적인 삶만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죽음을 육체로부터 영혼의 분리과정으로 본다면,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죽음을 육체적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보다 깊이 영혼, 영성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고 죽음방식이 보다 성숙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은 결코 올라갈 수 없다.¹¹⁾ 삶과 죽음을 통한 여행으로 자기존재를 이해할 경우,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는 세속주의나 물질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퀴블러 로스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 225, 226쪽

10) 소갈 린포체 『티베트의 지혜』 (민음사, 1999년) 7-9쪽

11) 생사학 전문가들은 죽음문제를 영혼이나 영성과 결부시켜 연구하고 있다. Kenneth J. Doka와 John D. Morgan은 *Death and Spirituality* (Baywood, 1993)을 펴낸 바 있고, 영성적 관심, 사별과 영성적 위기, 영성적 보살핌, 영성과 상담 등등에 관해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죽음을 육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육체의 죽음은 분명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일 뿐이고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것이다.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일 뿐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안다면,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퀴블러 로스가 생사학의 연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남편과 이혼하면서까지 생사학 연구에 몰두한 것도, 또 생사학이 존재하는 이유 역시 죽음은 끝이 아니므로 죽음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전달에 있는 것이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과 죽음의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임사체험자들은 죽음의 순간 마치 허물 벗듯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렸다. 죽음은 흡사 나비가 고치를 벗어 던지는 것처럼 육신을 벗는 것에 불과하다. 죽음은 보다 높은 의식 상태로의 변화일 뿐이다. 죽음의 순간에 유일하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육신이란 허물이다. 죽은 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봄이 와서 겨울코트를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 따라서 죽음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12) 따라서 죽음정의 대신 죽음판정의 육체적 기준만 논의하는 사회에는 육체의 죽음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에 자살사례가 급증하는 등 불행한 죽음만 양산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12) 퀴블러 로스 『사후생』 39쪽